



최동순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한국구술인물사 / 여익구 민족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②

# 열등감은 있었으나 의리만큼은 이겼다

친구 김갑현은 자수 형식으로 모든 사실을 자백했다. 그러나 여익구는 친구에 대한 의리를 지켰다고 호쾌하게 웃는다. 지식과 지성 모든 분야에서 김갑현에게 열등감이 있었지만 의리 하나만큼은 이겼다는 것이다. 그들은 평생 우정으로 지내면서 다른 길을 걸었지만 당시의 일은 두고두고 회고할 것이다. 우정과 라이벌 사이에서 여익구는 고통과 고뇌를 반복하며 현대사의 얼룩진 시대를 온 몸으로 맞닥뜨린다.

여익구는 민청학련에 연루된 동기로서 친구 김갑현 이야기를 쓰고 있다. 이미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에서 (1974년 4월) (학민사)이라는 책에서 밝힌 바 있으며, 2003년 <유심>과의 인터뷰에서 여익구는 송호필 시인과의 대담에서 본 내용을 언급했다.

여익구는 1973년 가을 김갑현과 만났다. 옥스퍼드대 유학이 예정된 김갑현을 대신해 유신헌법 반대를 위한 전국 대학생 데모 준비에 가담하게 된다. 동국대 총책임자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고교 졸업 후 재수하였고, 군입대와 월남 파병에서 돌아와 제대한 후 1년 동안 엔사이클로피디아 외판원 생활도 했다. 산전수전 겪었다는 표현이 맞아 보인다.

여익구는 유신반대데모를 위한 동국대 총책임이 되었다. 처음부터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라는 이름을 쓴 것이 아니었다. 여익구는 그것이 순수한 학생운동이었다고 강조한다. 서울대생이나 다른

연락처를 만났을 때는 실명을 쓰지 않고 가명(닉)을 사용했다. 정조적이었다. 이 때 동국대 내부에서 조직을 건설할 때 주목해야 할 부분은 봉은사 일대의 부지를 팔고, 조계종 총무원이 동국대 해화관(옛 중앙



카이운데가 여익구. 뒤 왼쪽은故 문익천 목사, 오른쪽은 김근태 前 국회의원.

공무원교육원 건물)에 들어온 것이다. 당시를 회상하며 여익구는 구술한다.

“그 당시에 박경준(동국대 불교학부 교수)도 뭘 했는데... 그래 민청학련에 소위 동대에 제가 총책을 맡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또 동대에는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나 하면, 봉은사 땅을 팔고 동대 그 지금 그 역사문화관인가 하는 걸 그 때 샀

어요 근데 봉은사 땅은 정말 너무나 무 험값에 팔았거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많은 사람이 동대에 있는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는 때야. 고걸 아주 많이 활용을 한 거죠.”

구전이나 기록에 의거했던 구술 채록 이론과 방법이 최근 미국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새롭게 등장했다. 미디어 발달에 따른 녹음기, 동영상 카메라의 보급으로 구술자의 생생한 기억을 담을 수 있다. 더욱이 카메라 촬영은 목소리와 표정, 몸짓을 저장시키고, 이를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는 저장고인 아카이브(archive)를 구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전란과 사건에 따른 민초들, 혹은 농부나 산골촌로의 삶 등 역사의 뒷안길에 있던 민중들의 목소리를 녹취했다. 그러나 명망가 중심의 구술이 없었다는 역차별의 발상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유명 인사들의 구술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었다. 화려한 역사의 뒷면에 각취된 에피소드들을 통해 보다 면밀하게 역사 기록과정을 시청할 수 있으며, 또한 적잖은 흥미를 제공하기도 한다. 명망가 중심의 구술은 2009년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구술 아카이브를 구축하며, 정치분야(명지대), 경제외교분야(외대), 군사분야(서울대), 종교분야(동국대·한신대)에서 유명 인사들의 구술을 활용 중이다.

불교분야는 여익구뿐만 아니라, 묘엄 스님, 전재성, 최연, 진관 스님 등 통해 현대사를 조망하고자 한다.

경봉 스님이야기 - 삼스굴의 향성②

# 반평생 일제 강점기를 보냈던 선지식

경봉 스님(1892~1982)은 조선이 몰락해가는 막바지 시기와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해방 후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민족상잔, 군사쿠데타 등 격변기를 온몸으로 겪다 가신분이다. 스님은 반평생은 일제 강점기로, 반평생은 해방 후 같은 민족끼리 이념분제로 편이 나뉘던 아픔을 고스란히 체험해야 했다.

1890년대 조선은 강대국들(영국, 러시아, 청, 일본)의 제국주의가 막바지 기성을 부르던 때였다. 1894년 탐관오리의 횡포와 외국세력의 침략으로 조선의 농민들이 힘들어 하던 즈음,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백성을 편안히 보살핀다는 '보국안민'의 기치로 동학농민운동인 갑오경장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다급해진 정부는 청나라에 도움을 청하게 되고, 청과 일본은 조선에 상륙했다. 일본은 청의 군대와 고종 임금의 총칼로 위협해 서울을 손아귀에 넣었다.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이 요동반도까지 세력을 넓히자 3국인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제지를 해 요동반도를 둘러준다.

러시아의 힘을 빌려 일본과 친일개화파를 내쫓고 왕권의 회복을 꾀하려

대신들이 일본에게 나라의 외교권을 넘긴 을사조약이 이뤄진다. 러일전쟁 중 독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한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것이다. 이 사실을 뒤에 알게 된 정부는 이곳이 우리 영토임을 밝히고 항의했지만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겼기에 철회조치를 하지 못했다. 해방후 독도는 다시 우리 땅으로 되었지만 일본은 틈날 때마다 일본 땅이라 역지를 부리고 있다.

1910년 일제 통치하로 넘어가 경북 궁 근정전에 일장기가 걸리고 조선총독부가 설치되어 무단통치하게 된다. 전국적인 대규모 저항인 1919년 3월1일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1920년 이후 다급해진 정부는 청나라에 도움을 청하게 되고, 청과 일본은 조선에 상륙했다. 일본은 청의 군대와 고종 임금의 총칼로 위협해 서울을 손아귀에 넣었다.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이 요동반도까지 세력을 넓히자 3국인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제지를 해 요동반도를 둘러준다.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국민이 주인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야

조선 몰락기·일본 강점기·분단과 한국전쟁 등

경봉 스님은 상처입은 백성 어루만져준 산부처

다 1895년 일본에 의한 민비시해사건인 을미사변이 일어난다. 명성황후를 암살한 일본은 개화파 정권을 앞세워 사사건건 조선의 국정을 간섭했다. 이런 간섭에 못이겨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파천이 이뤄졌는데, 이때 여러 나라들이 이권을 쟁기고 있었다.

자주근대화에 대한 노력은 진행되어 독립문 건립과 우리나라 최초의 순한글로 된 독립신문 발행 등이 있었다. 1897년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온 고종은 황제 즉위식을 갖고 국명을 대한제국으로 선포하였다. 그 후 정부는 개혁을 통해 서울 시내에 전차가 다니고 경인선 철도가 놓여 철도 시대가 열리기도 했지만 가난한 백성들은 여전히 굶주렸고, 러시아와 일본은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1905년 고종황제를 무시하고 몇몇

한다는 생각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1945년 해방의 기쁨도 잠시 미국과 소련에 의해 또다시 38선을 경계로 남과 북으로 나뉘었고, 결국 1950년 6.25 전쟁으로 수많은 이산가족과 사상자가 발생했다. 4·19혁명과 5·16군사 쿠데타로 박정희 정권이 탄생되어 새마을 운동과 70년대 눈부신 경제발전과 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 88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오늘날 수혜를 받은 국가에서 수혜를 주는 국가로 도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역사를 한 몸이 담아야 했던 경봉 스님은 상처 입은 백성들을 불법(佛法)으로 어루만져준 시대의 살아있는 부처였다.



정도 스님(통도사 포교국장)

일 목 스님의 위빠사나 수행이야기2 - 이해하고 내려놓기(下)

# 진정한 행복은 '팔정도' 수행을 해야 얻어진다

팔정도의 실천은 곧 불교수행이다. 이는 법규정의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출현하신 일곱 부처께서 공통으로 설하신 다음의 계승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諸惡莫作(모든 악을 짓지 말고) 衆善奉行(많은 선을 받들어 행하라.)  
自淨其意(스스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是諸佛敎(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은 한마디로 선한 마음을 계발하여 불선한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특히 가장 고집적인 어리석음과 탐욕을 남김없이 내려놓는 것이다.

결국 불교수행은 간단히 말하면 어리석음과 탐욕을 '내려놓기'이다. 이를 '방하작(放下着)'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은 첫째, 불선한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이들이 행복한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고 깊게 이해해야 한다. 이런 깊은 이해를 통해서 즉시 불선한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이해하고 내려놓기'라고 한다.

'이해하기' 없이 '내려놓기'를 한다면 불선한 마음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억눌려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밖에 나가서 뛰고 싶은 어린이가 부모님

의 꾸중이 두려워 집에 있는 것과 같아서 부모님이 외출을 하자마자 즉시 나가서 놀게 될 것이다.

둘째, '내려놓기'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알아차림과 지혜, 자비 등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계발하여 어리석음과 탐욕, 성냄을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내려놓기'는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마음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이고 부지런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상에서 간단히 살펴보았듯이 불교수행은 한마디로 팔정도이고 이를 간단히

말하면 '이해하고 내려놓기'라고 할 수 있다.

'이해하고 내려놓기'의 실천을 통해서 모든 불선한 마음을 내려놓고 열반을 깨닫게 되면 모든 괴로움이 소멸하게 된다. 그러면 불선한 마음으로 생긴 대립과 갈등이 없어지고 우리 마음은 고요함과 행복이 충만하게 된다. 진정한 행복은 팔정도의 실천, 즉 '이해하고 내려놓기'를 통해서 가능해진다.



일목 스님(제따와나 방배선원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 77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석, 쇠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향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곡,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1년 4월 14일까지
- ◆ 개강일시 : 2011년 4월 15일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 본원은 초중교 교육과정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북한산(삼각산) 적멸보궁 노적사 (전통사찰 201호)

## 노적사 청년회 재창립 발기 및 회원 모집

청년 불자를 키워야 불교가 발전합니다.  
불교의 중흥을 위한 제일 첫 걸음은 인재불사입니다.  
젊은 불자들의 소통과 신행을 위해 노적사 청년회를 재 창립 합니다.  
많은 청년 불자들의 동참을 바라오며,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약속 드립니다.

노적사 주지 **중후** 합장

문의 : 주지실 02)353-4924 / 대표 02)353-5016 / 팩스 02)386-4198

## 대한불교조계종 노적사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331번지